

은정 발굴 국악인재들의 공연 제1회 청소년 드림 페스티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발굴한 국악인재들이 국화꽃 만발한 조계사 경내에서 실력을 뽐냈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2일 저녁 조계사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은정 꿈을 나누다’를 주제로 ‘2016 청소년 Dream Festival’을 개최했다. 조계사(주지 지현스님)와 공동주최한 이번 공연은 은정재단이 주최한 전통예술경연대회 수상자들이 만드는 첫 번째 공연이다. 또한 전통예술경연대회 심사위원들이 국악인재들과 합동공연을 마련,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국악인재들에게 힘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수상자들의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해 낸 인재들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일환이다. 단

순한 일회성 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상자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심사위원-수상자’ 간 교류의 장도 열어준다는 취지다. 19인으로 구성된 봉은 국악합주단의 관현과 반주에 맞춰 수상자들과 특별게스트로 초청된 심사위원들의 협연이 가을 밤하늘을 수놓았다.

특별게스트로 초청돼 협연을 한 인사들은 공운주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와 최진숙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김상준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정영기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예능보유자 등이다. 수상자는 제1회 전통예술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강태훈 학생과 전세훈·김현수·백승연 학생, 제2회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이세영 학생 등 총 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제8회 나란다축제 각 부문 수상자들이 지난 22일 시상식이 열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꿈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할 것”

제8회 나란다축제 시상식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지난 9월 개최한 제8회 나란다축제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거행했다. 나란다축제의 핵심인 교리경시대회 만점 수상자는 총 3명으로 모두 군인들이다. 군장병 부분에서는 6군단 불이사 소속 최인혁 상병과 8군단 호국충용사 소속 안재근 일병이 만점을 받아 공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관생도 부분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노유진 생도가 만점을 기록했다. 군장병 대상 수상 장병들은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상휴가, 장학금 각 100만원을 받았다. 노유진 생도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200만원이 주어졌다.

초등부 대상은 수명초 5학년 노승현 학생(서울 약사사)이 받았다. 중등부와 고등부에서는 대구 능인중 3학년 안재민 학생과 영석

고 2학년 김광현 학생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 3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새롭게 신설된 우리말 독송대회 대상은 영석고 라훌라팀이 차지했다. 한편 현장에서 결과가 발표된 초등부와 일반부는 수명초 5학년 노승현 학생(서울 약사사)과 조계사 불교대학 이재림씨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제15회 은정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은정학술상을 수상한 박보람 동국대 다름마칼리지 초빙교수를 비롯해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불교인권위원회 등 70명의 개인과 단체에 총 1억24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시상식 인사말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하는 나란다축제는 명실상부한 불교계 최대 교학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여러분의 꿈이 있는 곳에 늘 ‘은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2016 신작찬불가 최우수상 ‘우란분재’

총무원, 24일 심사결과 발표
우수상에 ‘팔상성도 이야기’

찬불가 창작과 보급을 위한 ‘2016 신작찬불가 공모전’ 최우수상에 안승철 작곡, 영심스님 작사의 ‘우란분재(문 앞의 까치소리)’가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음악원이 주관한 가운데 신작찬불가 공모사업 접수를 마감하고 지난 24일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우란분재(문 앞의 까치소리)’는 부처님의 자비로 조상과 일체영가를 천도하는 명절인 우란분절을 기념하

기 위해 만든 곡이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국악적 장단 및 멜로디가 조화롭게 표현된 곡이며, 음악적 형태가 가장 잘 갖추어진 곡”이라고 평했다.

이와 더불어 우수상에는 이윤정 작곡, 우학스님 작사의 ‘팔상성도 이야기’가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회는 “부처님의 일생을 6분이라는 짧은 곡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멜로디로 잘 표현한 곡”이라고

평했다. 이외도 장려상 3곡, 노랫말상 1곡 등 모두 6곡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상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7일 오후4시 서울 봉은사 불교음악원에서 제3회 불교음악상 시상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날 △최우수상에 300만원 △우수상에 100만원 △노랫말상에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 각 상금 5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허정철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백남기 씨 부검 반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백남기 씨 부검 반대’ 오체투지

사회노동위 “힘 보태겠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씨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부검 반대와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백 씨의 시신 부검 영상(압수수색검증영상) 유희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용스님)는 영장 강제 집행에 반대하며 서울 조계사에서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오체투지 행진에는 총무원 사회국장 지상스님, 사회노동위원장 해용스님, 부위원장 도철스님, 실천위원 고금스님 등 70여 명이 참

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이마와 두 팔꿈치, 두 무릎 등 몸의 다섯 부분을 온전히 땅에 닿도록 오체투지하며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유족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우리가 백남기다’ ‘살인정권 규탄한다’ ‘부검말고 특검하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 특검으로 책임자 처벌’ 등이 써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정부에 백 씨 사망의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사회노동위는 지난 20일 세월호 참사 현장인 전남 진도 팽목항과 사고해역을 찾아 제3차 인양 촉구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11월1일 특강 시작으로 ‘천일 화엄대법회’ 봉행

범어사, 53선지식 법석 마련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스님)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53선지식 천일 화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11월29일부터 매달 초하루 법회를 맞아 선지식을 초청해 법석을 연다. 범어사는 11월1일 오전10시 보제루에서 불교사 승가대학장 덕민스님을 초청해 법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1월2일에는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을, 3일에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을 법사로 3일간 ‘화엄대법회’ 특강을 연다. 특강은 <화엄경>의 개요와 경전에 담긴 대의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이날 대웅전에서 화엄신중 천일기도를 임재한다.

오는 2019년까지 1000일 동안 매달 개최하는 화엄대법회는 모두 53차례에 걸쳐 선지식 초청 법문으로 진행되며, 특강에 이어 11월29일에는 무비스님이 첫 강사로 나서 법문을 한다. 범어사의 이번 행사는 “의상조사가 화엄의 사상을 펴고자 개산한 범어사의 정신을 회복하고, 불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주지 경선스님은 “1000일간 기도 정진하며, 전국의 선지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울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신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안직수 기자 isahn@ibulgyo.com

대불청 29대 중앙회장에

김성권 전 전북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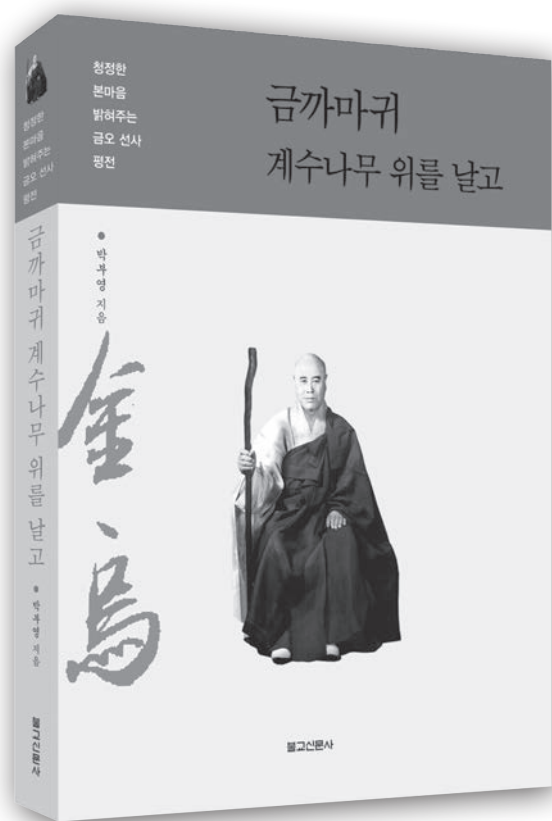
대한불교청년회 제29대 중앙회장에 단독 입후보했던 김성권(46, 법명 흥법) 전 전북지구회장이 당선됐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23일 제66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29대 중앙회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김성권 중앙회장(사진)을 선출했다. 참석 대의원 54명 전원이 투표권을 행사한 뒤 진행된 개표결과 찬성 52표, 반대 2표로 최종 당선



CMS 확충과 재원마련 수익사업 등 100주년 행사를 대규모 축제로 키울 토대를 준비하는 동시에 만해스님의 문학세계를 널리 알릴 만해문학관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금까마귀 예수나무 위를 날고

청정한 본마음 밝혀주는 금오 선사 평전

박부영 지음 | 불교신문사 | 271쪽 | 18,000원

문의 (02)730-4488

왜 출가를 하는가? 출가자에게 답을 던지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선방에 왔느냐?”
“큰스님, 전성성불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다시 금오 선사의 죽비가 내려졌다.
“그레 전성성불을 이루기 위해 온 놈이 허구한 날 이렇게 즐기고 있느냐.
참선 수행 중에 그렇게 즐기고 앉아 있으면 꿈속에서 떡 장사에게 떡은 얻어먹을지언전 전성성불을 이루기는 애초부터 글렀어.”
수좌는 말문이 막혔다.
“수행이란 농사꾼이 농사짓는 것이요, 장사꾼이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가수행자가 공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참선 수행 중에 조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 본문중에서

제1부 금오 선사의 생애

제2부 정화, 그리고 선사의 사상과 수행관

제3부 금오 선사를 기리며